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
조나단 도슨 지음
CUP

행인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같은 길거리전도나 돌진적인 사영리식 전도법에 회의감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이 많다. 과격하고 비인격적인 전도법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대처할 좋은 방법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기독교 신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신자의 갈등과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 시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전도법을 제시한다.

저자 조나단 도슨은 처음에 전도가 어려운 이유부터 분석한다. 문화적, 방법적, 지적 측면 등 여러 요인을 들 수 있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도 뜨끔했는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맞는 지적이었다. 내 주변에도 사회생활에서 ‘보수성’, ‘배타성’ 등의 편견을 야기시키는 기독교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특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웃 전도에 소극적인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잠29:25)”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다. 주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복음은 속박이 아니라 해방임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한다.

저자는 복음을 ‘역사, 개인, 우주’의 삼차원으로 나눠서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복음(예수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한 교리)과 개인적 복음(개인의 변화로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을 회복)을 통해서 우주적 복음까지 이어져야 복음이 온전해진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름에 맞게 사회적 병폐 치유와 위대한 문화를 형성하는 일을 말한다. 과거에는 개인 구원만 강조했다면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까지 복음은 확장되어야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저자의 전도사례를 다루었는데, 핵심은 다양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 것처럼 전도대상자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의 삶을 이해하면서 그에 맞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도 전도대상의 이해능력과 상황을 세심하게 배려하곤 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 지혜와 사랑을 구하면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도우시며 구원의 능력이 복음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 저자의 전도사례 중에 마약중독에 빠졌던 청년 제임스가 저자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지 열흘 만에 뇌막염으로 세상을 떠난 사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주저하는 사이에 그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음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책 속의 한 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상대방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뻑뻑한 일정을 수정하고, 정형화된 대답을 피하고, 진심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p.171